



비금도의 염전.



고이도의 새우양식장. 천일염 가격이 하락하면서 염전을 새우양식장으로 개조하는 곳이 늘고 있다.

볼거리·먹거리 지천 '원석' 가득한 천사섬



역사·문화 간직 '섬 박물관'...관광지·도로 정비 등 미흡
유명 섬·외딴 섬 간 격차 커...지자체 자산 활용 방안 시급



제4부 전남의 섬, 섬사람들
신안편



신안 역시 완도와 마찬가지로 섬으로 구성된 지자체다. 압해대교를 통해 목포와 연결된 압해도에 군청이 있고, 그 북쪽에 2012·2015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관광지 100선에 오른 증도, 신안틀립공원과 화산리지석묘로 유명한 임자도, 무안군 해제면과 연속된 지도, 매화도, 고이도, 병풍도 등 북부 군도(群島)가 자리하고 있다. 압해도 맞은편에는 둔장해수욕장 등 9개의 유명 해수욕장이 감싸고 있는 자은도, 일제강점기 조각농의 향정이 있었던 압태도, 함초집단지배지가 있는 팔금도, 고니도래지와 지석묘군·고분군이 자리한 안좌면, 2015년 가고 싶은 섬 사업 대상지인 반월·박지도의 압해·중부 군도가 있다.

그 아래로 도장리 백제석실분으로 알려진 장산도, 염전이 길게 이어진 신의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 하의도 등이 형성돼 있다. 명사십리해수욕장과 이세돌 기념관이 자리한 비금도와 고랑평야와 시목해수욕장으로 알려진 도초도 등이 그 위에 자리하고 있다. 이들 섬이 마치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형성돼 있으며, 이들을 잇는 연도교 공사가 더디지만 진행 중이다. 비금·도초·자은·압대·팔금·안좌 등은 이미 다리가 놓여 있으며, 나머지를 잇는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다이아몬드'에서 동떨어져 모래언덕(砂丘)의 우이도, 거기서 더 먼 흥어의 흑산도, 비경의 흥도, 낚시섬 상·하태도, 우리나라 최서남단에 자리한 가거도, 유명 TV프로그램의 촬영장이 된 만재도 등이 있다. 이들 섬은 '하늘과 바다가 허락해야' 갈 수 있는 곳이다. 그만큼 가고 오는데 날씨의 영향을 받고, 만바다의 거친 파도를 감당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는 의미다.

신안은 마치 인간처럼 다양한 형태와 역사·문화를 간직한 '섬 박물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섬이 몇 개인지는 논란의 대상이 된다. 당초 섬이 1004곳이어서 '천사의 섬'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섬 개수는 1025곳이라는 것이 신안군의 입장이다. 하지만 전남도는 880곳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인도는 72곳으로 일치하지만, 무인도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섬에 대한 기준이 다르고, 실제 현장조사가 면밀하게 실시된 적이 없어 정부는 물론 전남도, 각 시·군의 집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게다가 신안은 지역 홍보 차원에서 부르기 쉽게 섬 숫자를 1004개로 '조정'해버리기도 했다.

신안의 특산물은 단연 소금이다. 비금도의 대동염전, 신의도

의 신의도염전, 증도의 태평염전 등에서 천연 미네랄을 가득 담고 있는 갯벌과 청정바다, 그리고 강한 햇빛이 만들어낸 자연 식품, 천일염을 전국의 90% 가까이 생산하고 있다. 소금 시세에 따라 지역 경기도 크게 좌우된다.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최고가'를 경신했던 소금 가격은 이후 큰 폭의 하락세에 접어들면서 염전 주변에서 웃음도 사라졌다. 고급화 전략으로 유명 백화점 납품에 성공한 몇몇 업체를 제외하고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후문이다.

소금 값이 하락하자 염전에 새우를 양식하는 주민들도 늘고 있다. 새우와 함께 신안을 대표하는 것은 낙지다. 섬 곳곳에 펼쳐진 천해의 갯벌에서 나는 낙지는 '무안산(産)', 또는 '영암산'으로 알려져 있지만, 대부분이 신안에서 나는 것라고 주민들은 말한다. 전용 삼을 들고 갯벌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주민들을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는데, 과거에는 물론 지금도 하루 100마리까지 잡는 '꾼'들은 마을에 한 명씩은 꼭 있다고 한다.

이 밖에도 소라·조개·고동 등 패류는 물론 민어, 병어 등 어류에 이르기까지 신안의 해산물은 풍성하다.

엄청난 섬의 수만큼 다양한 관광자원과 계절별 먹을거리를 지닌 신안은 그러나 가난하다. 올해 기준으로 신안군 예산은 4077억원인데, 재정자립도가 고작 4.8%다. 군 자체적으로는 직원 월급도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인 셈이다.

신안 섬을 돌아다녀보면 여수나 완도 등과는 달리 관광지가 정비되지 못한 채 방치돼 있거나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미흡한 곳이 상당했다. 섬 간 격차도 컸다. 관광객이 자주 드나들고, 주민 소득도 높은 곳과 외지에 자리하고 교역자가 대부분인 곳의 삶의 질은 같은 지자체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무색하게 만들었다.

아마도 1969년 무안군에서 나뉘면서부터 뒤늦게 독립된 지자체로 출발한 신안군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활용해 주민 소득 향상과 군 재정 확충 등의 방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탓이 크다. 또 섬마다 경쟁이 치열하고 지지않으려는 주민 간 의식도 강한 측면도 발전이 더딘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신안=이상선기자 sslee@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흑산도수협터의 흥어 위판 현장.



도초도의 해수욕장.

특허방수 2중단열 방수 | 전천후 시공성 | 절연방식 시공 | 내구성 탁월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하자없이 20년은 너뿐이까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옥상방수 | 대 한 건축사 협회 | 우수 건축자재 추천제품

특허 방수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허 제10-1239196호
특허 제10-0562035호

넓은 건축물을 새 건축물로~ 차별화된 익스테리어로 건물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한 **재테크 효과** ~ 방수와 디자인까지 일석이조! 단열효과로 냉난방비 절감까지~

외벽 패턴: 대리석지붕, 대리석소문틀, 풍나무, 스텔라디쉬 지붕지, 벽면재(양면배합도)

시공전 | 시공후

※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아트패션시트 카탈로그) 다양하고 아름다운 패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전남대리점 **1062) 511-0444**
목포 T.(061) 284-0485 / 여수 T.(061) 683-0485 / 순천 T.(061) 726-0482 / 광양 T.(061) 795-0485